

교육,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 말은 교육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말이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존재로 태어난다. 갓난아기가 언어를 익히고, 걷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교육의 시작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육은 늘 사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잇는 다리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입시 중심, 성적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움’이라는 본질이 ‘경쟁’과 ‘선별’ 속에 가려진 모습이다.

오늘날 교육은 수많은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기술의 발전, 정보의 범람, 인공지능의 등장 등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점점 더 빠르게 구식이 되고, 시험성적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가능성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육현장은 정답을 암기하고 점수를 올리는 것에 집중한다.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실패 속에서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제도는 이런 과정을 허용하기보다, 정해진 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

하게 외우는지를 평가한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이 배우는 기쁨보다 부담과 피로를 먼저 느낀다.

미래의 교육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첫째,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역량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을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회적 책임감과 창의성을 함께 배우게 된다. 셋째, 교사의 역할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성장을 돕는 멘토'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의 틀에 안주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혼란과 불평등 속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아이들은 경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성장,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수동적 수용이 아닌 능동적 참여로 나아가는 교육,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9. 8.)